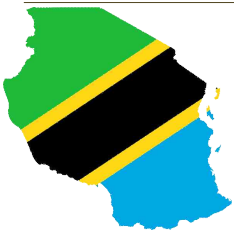




열여섯번째 이야기

고난도 달게, 배고픔도 배부르게

[선교지 선교사역③ 탄자니아 졸업식]



“절박함”, 탄자니아 사역을 통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케냐와 우간다 때와는 다르게 그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저의 감정입니다. 케냐와 비교하면

삶의 수준은 절반, 목마름은 두 배...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아프리카인답지 않게 저돌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아프리카에서의 삶의 속도는 정말 느린데... 수료증이 필요해서 그런가? 혹시 선교사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가 1년 반 정도를 들어가지 못했고, 기존에 배출된 탄자니아 인도자들이 학생들을 모집해서 스스로 가르쳤고 그 숫자가 300명을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학생들 대부분은 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내륙으로 들어갈 수록 그 절박함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외국인을 보기 힘들어서 저를 보면 모두 신기하게 느낍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와서 피부도 만져 보고 머리도 만져 봅니다. 한국에서 그 흔한 필기구와 종이 등 문구류도 많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물론 교육의 기회도 적고요. 그래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는 이보다 더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가 저의 마음을 보칩니다.



탄자니아 길거리

탄자니아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워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했기에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없고, 얼마 전부터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백신을 맞기 싫어합니다. 사망률은 어떠냐고요? 이미 더 많은 사망요인이 있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보입니다. 여하튼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세미나를 할 수 없던 그때, 그 ‘절박함’이라는 엔진을 달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만들고 보내고, 성적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사역을 시작한 것은 2018년 11월, 3년 6개월만에 첫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342명을 대상으로 4개 도시에서 8번의 졸업식을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룹들은 인근 도시로 와서 같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홍지연 선교사와 같이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옷을 입혀 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부부 선교사로서 같이 해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탄자니아로

사파리 여행 반, 선교여행 반 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탄자니아 첫 번째 BEE 선교사 아루샤 4-5번째 졸업식 중 (아가페 선교사)

경제 수도인 '다레살람' 외곽에서 3개 그룹이 같이 한 2번째 졸업식에서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KISA' 여목사님은 기존 찬양곡을 개사 해서 BEE의 철학인 딤후2:2를 주제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 모든 학생이 특별찬양 순서를 갖게 했습니다. KISA 목사님은 자신이 사는 다레살람에서 차로 이틀거리인 Mbeya를 여러 번 왕복하면서 13명을 DMP(총 학생 22명)까지 인도하고 왔습니다. 3번째 졸업식은 시내의 큰 도로 옆에 있는 고센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식 행사 입장을 1km 정도 밖 도로에서부터 하자고 해서 지나가는 버스 등 차량을 대기시키고, 밴드의 연주에 맞추어 한참을 걸어 졸업식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인파가 저를 보는 데 참 뭐라 해야 할지... 새로운 경험이었습시다!

4, 5번째 졸업식은 '아루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루샤'라는 도시는 그 유명한 세렝게티와 킬리만자로산과 오롱고로 분화구의 입구에 있는 도시로 국제적인 사파리 관광 명소입니다. '마사이'들과 야생동물을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라 두 번에 나누어 한 장소에서 하였는데, 졸업식 행렬도 행렬이지만 인근 주요 인사들이 다 찾아와 같이 졸업식을 축제처럼 즐겼고, 인근 방송 신문사에서도 와서 취재하는 등 색다른 느낌이었습시다. 무엇보다도 졸업식 전 예배 때 찬양이 너무 좋았습시다. 오랜만에 저도 춤을 추며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시다.



아루샤 4-5번째 졸업식 아루샤에서 기자들의 인터뷰

6번째 졸업식은 비행기로 아루샤에서 빅토리아 호수 근처 도시 '므완자'로 이동 후 다시 차량으로 6시간 정도 더 가서 '카토로'라는 곳에서 졸업식을 야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페리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이다 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신기해합니다. 카메라 조명 등 평소보다 많은 전기를 쓰다 보니 한 5분에 한 번씩 정전이 되었지만 끝까지 잘 치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DBS 까지 마친 그룹으로 탄자니아 전체 리더 목사인 몰레카 목사님이 인도한 그룹입니다. 학생들의 특별한 찬양순서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녹음된 음악을 틀어놓고 곡에 맞추어 각자 맡은 부분을 노래하면서(약간 랩 같은 부분도 있고요) 율동하며 립싱크하듯이 찬양하였습니다. 감사를 주제로 한 내용으로 BEE Korea가 여기까지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고맙다는 취지로 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보여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7, 8번째 졸업식은 다시 '므완자'로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먼 거리의 졸업식 Marching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이 가운을 입게 되는 담임 목사님 집에서 졸업식 행사가 있는 교회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밴드 주악에 맞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졸업식은 오전 졸업식과 다르게 동네 한 바퀴를 돌도록 담임 목사님이 길을 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이 골목은 모슬렘들이 사는 곳이었습시다. 찬송가를 부르며 모스크와 모스크 주변의 이슬람 문양이 있는 집들 사이를 지나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사실 민속 모슬렘이라 그리 강성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특유의 감성으로 손을 흔들고 환영해주는 모습도 재미있었습니다.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므완자 졸업식 졸업식 후 모스크 앞을 지나며

더 많은 분이 1~2개월, 3~4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오셔서 아프리카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세 상자에 쌓여 있는 성적표와 폴더들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A4 용지 성적표 한 장, 그 한 장에 담겨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현실을 알기에 그들의 수고가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BEE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고난을 달게 만들고, 배고픔을 배부르게 만드나 봅니다.



아루샤, 카토로 졸업식

[글 신동준 선교사 정리 김종영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어린이들이여, 나에게 오라

(칼 하인리히 블로흐, 1879년, 코펜하겐 힐레뢰드(Hillerød) 크리스티안 4세 왕실교회 기도실)

요즘은 혼한 풍경이지만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대함은 놀라운 것이다. 16세기까지만 해도 미술사에서 어른들만

주인공으로 등장했을 뿐, 어린이들은 거의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을 막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겸손을 상징하는 황토색 옷을 입은 아이는 오른손으로 끌어안고,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천을 두른 아이는 왼손으로 잡으며 말씀하신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19:14).”

[출처] 성경 미술관, 작성자 말씀과 성화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2. 서울 도심 속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 ‘찾아온 사랑을 찾아’, 제한된 인원(12명)으로 떠납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장소 : 서울 연동교회, 일정 : 6월 18일(토) 9:30 출발~~
3. 7월 2일(토) 2022년 "All & One"이 진행됩니다. 감사와 축복의 자리에 BEE 가족을 초대합니다!
4. 11일(토) 부천 BEE 식구들이 대면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주, 부천의 BEE 식구들은 대면 기도모임으로 모입니다.

